

지 상 범 석

“자신을 알지 못하면

다시 푸는 경서

치문경훈 (28)

孤山圓法師 示學徒 (고산원법사 시학도) ②

守仁義而確乎不拔 處貧賤則樂以忘憂
수인의이확호불발 처빈저즉락이망우
自然與福斯遠 與福斯會
자연여화사위 여복사회
豈假相與得命 詔求榮達之期
기가상형문명 천구영달지기
擇日趨時 苟免否屯之運
택일선시 구면비문지운
此豈涉門之遺蹟 實惟俗子之妄情
차기사문지원식 실유속자지망정

인의를 지킴에는 굳세어 뒤흔치지 않게 하고 빈천한 데 처한 즉 즐거움으로써 근심을 잊으면

자연히 화는 어긋나고 복은 모여들게 되어라

어찌 형상에 빚어 운명을 물어서 영달의 때를 아침으로 구할 것이며

날을 가리고 때를 끌어서 구차하게 비싼 운수를 면하려 하겠는가

이것이 어찌 사문의 원대한 식견이라

이는 실로 속인들의 망령된 생각일 뿐이다

宜乎見賢思齊 當仁不讓

명리와 죽고사는 걱정으로 근심치 말라 지혜로 미혹 없애고 자비로 사람을 포용

의호견현사제 당인불양 義雲山之求法 學善財之尋師
모실산지구법 학선재지심사
名利 不足動於懷 死生 不足憂其慮
명리 不足動於懷 死生 不足憂其慮
명리 부족동어회 사생 부족우기려
儻功成而斯遂 必自適而步涉
당공성이사수 필자이이척하
불조남고名自揚 不召來而來自
불고명어명자상 불소중어중자지
智足以照惑 慈足以攝人
지족이조혹 자족이섭인

마땅히 어진 이를 보고 (그와) 가리 면해지길 생각하고 인의를 만나 사양치 말며

부처의 설산구법을 사모하고 선재동 자의 53선지식 찾던 일을 배워서

명리의 뜻을 풀어 폭히 움직이려 하지 말고 죽고 사는 걱정으로 근심 떨지 말자이다

혹 공부하 쌓여서 일을 마치게 되려 던 반드시 가까운 데로부터 먼 데로 오 르게 되니 (세속일을 떠나서 도의 길로 나아갈, 또는 '나'의 문제로부터 '전체' 의 문제로 나아갈)

(그렇게 해 나가면) 이들을 팔지 않 되(매명) 이름이 스스로 드러나고 대 중을 부르지 않되 대중이 스스로 오는지

라 지혜가 넉넉함에 그로써 미혹을 비취 없애고 자비가 넓치매 그로써 사람을 끌어잡게 된다.

窮則獨善其身 達則兼善天下
궁즉독선기신 달즉겸선천하
使真風靡而再振 慧炬滅而復明
사진풍식이재진 혜거멸이부명
可謂大丈夫焉 可謂如來使矣
가위 대장부인 가위여래사의
豈得身操操 跡蹤常徒
기득신서감사 직혼상도
在藏惡則無所然 於行解則不見可畏
재강악즉무소문연 어행해즉불경가의
以至積德成性 自滅其身
이지적덕성성 자멸기신

(뜻을 못알어) 궁하면 홀로 저를 닦 고 통달하면 겸하여 천하까지 좋게(제 도)하니 그로하여 진리의 바닷물이 찾아 든 것을 다시금 떨치게 하고 지혜의 햇 불 꺼져가던 것을 다시 밝게 하면 가히 대장부라 할 것이며 가히 여래 의 심부를 군이라 할 것이다.

강원에 들어가 살면서 발자취가 보통 사람들과 섞여지내며 더러운 속세에 머물면 허물을 지적하지 않게 되니 행과 해에 두려워 함을 보지 못하는지라, 어찌 그로써 승승이 쌓여 성품이 되게 해서 제 몸을 망치려 드는가.

始教慕彼上賢 終究論於下惡
시교모피상현 종권론어하악
如斯之輩 誠可悲哉
여사지배 성가비재
詩云靡不有初 鮮克有終 斯之謂矣
시운미불유초 선극유종 사지위의
中人以上 可不哀歎
중인이상 가불제여

처음 배울 때에는 저 옛 선지식을 사 모하다가 끝내는 하열한 악에 빠져드는 것을 보게 되나니

이같은 무리들은 진정코 불쌍하거나 옛 시에 이르기를 '처음이 없는 법은 없으나 마침이 있기는 (유종의 미를 거 두기는) 극히 드물다' 하니 이같은 경우 를 두고 한 말이다.

중근기(보통사람) 이상은 경계해야 하지 않겠는가.

龍眼

제가 지금 20여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속세의 인연으로 찾아온 풍(風) 기운을 소멸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법문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법문이란 특별히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산속에 흐르는 물소리, 바람소리가 다 상승 법문입니다. 새들의 지저귀 소리 들리고, 새벽하늘에 빛나는 별빛을 보고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활소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체가 다 자신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昆崙 延壽萬壽(비로 연일만방) 東海 延壽里通(동해 연만리통) 山海 濟淨法身(산해 청정법신) 風聲 說解曲(풍성 설해곡)

비로는 헤아릴 수 없이 우뚝 솟아있고, 동해는 널리 도달하지 않는 바가 없네. 산과 바다는 청정 부처님이요, 바람소리는 조사의 노래소리요.

일체중생이 다 천진불(天真佛)이라 했는데 왜 천진불이 자급처럼 우매 했을까요.

우매한게 아니라 애초에 깨닫지 못한것입니다. 불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삼 천대전세계에 있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들이 애초에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오셔서 49년동안 설법하신 것이 바로 깨달음을 얻기 위

“백년이 안되어 소멸하는 몸통이라는 내가 아닙니다

생각을 일으키게 하는 근본 주인공을 깨달아야”

한 공부하는 법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네가 너 자신을 알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자기자신도 모르는 자를 어찌 사람이라 할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형상만 하고 있을 뿐 참사람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깨달아야 사람노릇을 하게 됩니다.

백년이 안되어 소멸하는 이 몸통이라는 내가 아닙니다. 이 몸을 움직이게 하고 생각을 일으키게 하는 근본 주인공(主人公)을 깨달아야 합니다.

“凡所有相 皆是虛妄(법소유상 개시허 망)”이라

“若見諸相非相 即見如來(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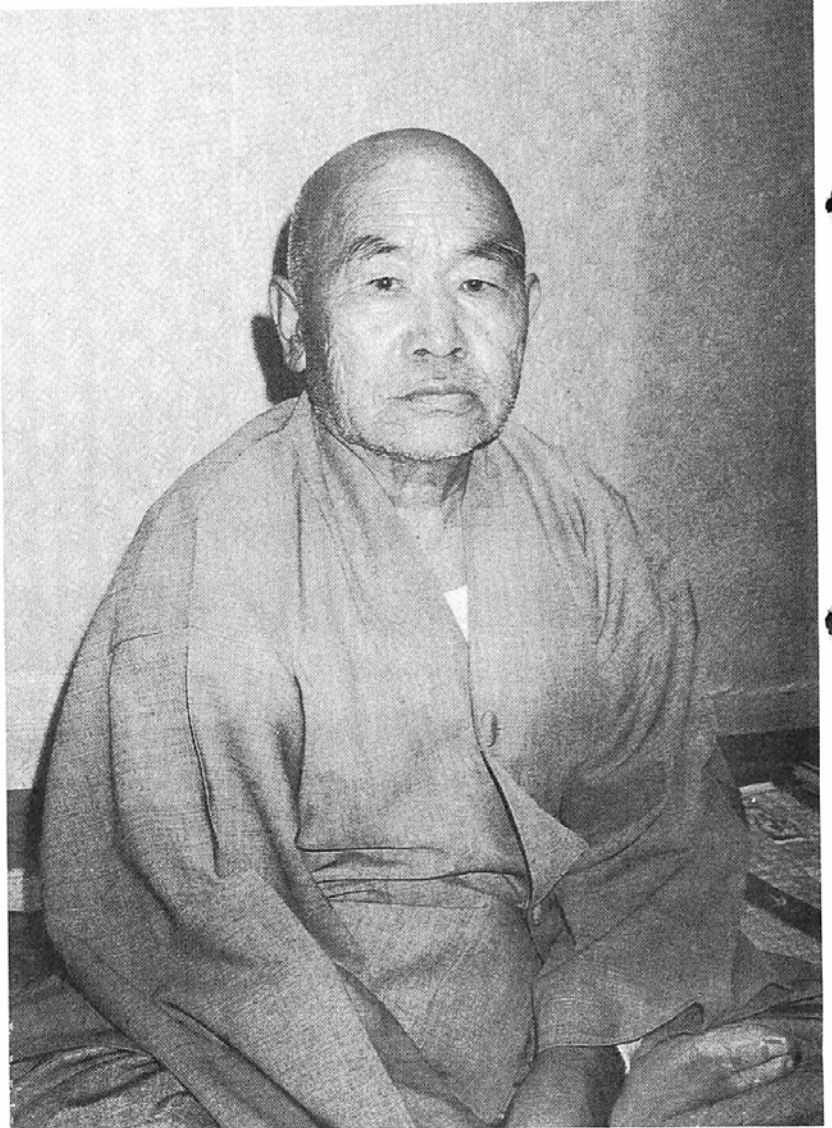
무릇 이 세상 물건은 하나도 몇몇한게 없습니다. 한번 생겨난 것은 반드시 말하게 되어 있으며, 모든 형상이 있는 것은 허망한 것이며 만약 어떤이가 일체상이 상 아 님을 보면 곧 부처를 보는 것입니다.

공양경 한구절 가르치는 게 사방세계 사 람 모두를 먹여 살리는 공덕보다 더 크다고 했습니다. 대수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 려고만 해도 얼마나 큰 부처리아 되겠습니까

성찬스님 (도성암 조실)

약 력

- 1914년 8월 26일 충남 논산 생
23세 되던 해 만공스님 은사로 계룡산 동학사로 출가
1969년 이후 대구 비슬산 도성암 주석



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려도 나 고 죽는 생사의 이치는 가르쳐주지 못합니 다. 한 생각이 어두워 깨닫지 못하는 것이 니 한 구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한 구 절을 예사로 흘려 듣지 말고 깊이 체득해야 합니다.

자기자신을 완전히 깨달으면 영생불멸과 대자유를 얻게 됩니다. 옛날 얘기를 하나 들려 드리겠습니다.

아득한 옛날에 가섭부처님이 계셨는데 이곳 비슬산 도성암에 이르러 말씀하시기를 “장차 이 자리에서 천 명의 도인이 나 오리라”고 예언했습니다. 신라시대의 고승 도성국사가 도인(道眼)으로 이를 관하고

음악을 짓고 수련했는데 훗날 선덕여왕 때 승법스님이 절을 세우게 현재의 도성암입 니다. 그래서 여기는 신라시대부터 천인들 도지(千人道地)라 불리었습니다. 지금까 지 48분의 도인이 나왔는데 9분의 유물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삼국유사에 보면 이 산에 도성(道成) 선 사와 관기(觀機)선사 두 도인이 봉우리를 마주하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관기선사가 도성선사 있는 곳으로 오면 산의 나무들이 미리 도성선사가 있는 봉우리로 쏠리고 도 성선사가 관기선사 있는 봉우리로 가면 그 반대편으로 나무가 쏠렸대요.

이렇게 두분이 유유자적하면서 살다가

같은 날 열반하시면서 무애자재의 큰 이적 을 남겼습니다. 암자 뒤쪽으로 올라가면 도 통비위라고 있는데 거기서 도성국사가 먼 저 허공에 떠 오르뒤 등천하였고 관기선사 가 그 뒤를 따랐답니다. 이렇듯 깨달음을 얻으면 생사를 초월하여 무애자재의 대자 유인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깨달음에 들수 있을 까요. 중국 선불교의 증후조인 6조 혜능대 사는 대중들에게 “나에게 한 물건이 있는 데 머리도 꼬리도 없고 적색도 황색도 청 색도 백색도 아닌 이것이 무엇이고 (이렇 기요)? (吾有一物 無色無形)”라고 하였습니다.

경허스님은 “알겠느냐? 어느물건이 설법

성아출판 TEL 778-6626-7 FAX 778-6628 42장경 1.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2. 삶의 해변에서 모은 조각들

지금 이 자리에서의 깨달음 오석제 옮김 유럽의 정신세계를 일깨운 데시마루 선사의 대화록

존재론·시간론 인식론·논리학 인도불적답사기 큰 죽음의 法身